

물질주의와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통제성의 매개효과: 중년기 여성을 중심으로

최태선¹, 최응용^{2*}

¹대구대학교 대학원 상담학과 박사수로

²대구대학교 산업복지학과 교수

The Mediating Effect of Locus of Control Between Materialism and Well-being of Middle-aged woman

Taesun Choi¹, Woongyong Choi^{2*}

¹Ph.D. candidate of Dept. of Counselling, Daegu University

²Professor, Dept. of Industry Welfare, Daegu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물질주의와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통제성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B시, C시, D시의 중년기 여성 239명이었으며 척도는 Richins과 Dawson(1992)의 물질주의 척도, Levenson(1981)의 통제성 척도, 그리고 안녕감은 Watson과 Clark 및 Tellegen(1988)의 정서적 안녕감 척도(PANAS)와 Ryff(1989)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PWBS)가 사용되었다. 자료 수집 후 기술 통계 분석,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그리고 Sobel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물질주의와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통제성의 하위 변인인 외부통제성이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중년기 여성의 높은 물질주의에 따른 낮은 안녕감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외부통제성을 낮추는 것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물질주의, 통제성, 정서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중년기 여성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locus of contro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ism and well-being of middle-aged woman. For the study, the survey of 239 middle-aged women in B, C, D city was used. As a scale, a Richins & Dawson(1992)'s widely-used materialism scale, the Levenson(1981)'s locus of scale, Watson, Clark & Tellegen(1988)'s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ale (PANAS) and Ryff(1989)'s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PWBS) were used. The survey data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reliability, correlation and the mediating effect was verified by Baron & Kenny (1986)'s 3 step using SPSS 23 and sobel test. Mediating analysis indicated that the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materialism and affective well-be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were reduced significantly when the external locus of control was statistically controlled. Results are meaningful with respect to overcome materialism of middle-aged woman and in the relation to other research that has explored reasons why materialism is related to lower level of affective well-being & psychological well-being.

Key Words : Materialism, Locus of control, Aff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well-being, Middle-aged woman

*Corresponding Author : Woongyong Choi(choiwy@daegu.ac.kr)

Received May 28, 2020

Accepted August 20, 2020

Revised July 20, 2020

Published August 28,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행복하게 잘 살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이다. 행복한 삶에 관한 개념은 시대와 사회, 사람마다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다르지만, 요즘 대부분 사람들은 물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물질 소유 자체가 행복의 근원으로 여겨 물질에 집착하게 되었으나, 결과적으로 행복과 멀어지게 되었다[1].

우리나라는 2019년 국내 총생산(GDP)은 세계 12위, 1인당 국민 총소득(GNI)순위는 세계 30위권으로 매김되어 유사 이래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만[2]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895로 조사국 156개국 중 54위,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 당 25.7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로 나타났다[3]. 심지어 고등학생 과반 수 이상이 '10억 원이 생긴다면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는 문항에 동의할 정도로[4] 다른 사회문화권에 비해 물질주의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5], 과연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물질적 풍요가 행복으로 이어지는지 의문이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높은 물질주의 현상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 되었다[6]. 이처럼 우리나라가 높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낮은 안녕감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현상에서 벗어나려면 높은 물질주의를 넘어서야 하며[7], 높은 자살률, 낮은 행복지수 등 여러 사회적 지표와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물질주의를 넘어서는 심리적 방법에 관한 연구가 매우 절실함을 알 수 있다.

물질주의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심리학 분야에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1,8-13],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연구되고 있다[14-21]. 물질주의에 관한 메타분석에서 물질주의는 정신건강을 나타내는 12가지 지표와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며[1], 높은 물질주의는 낮은 수준의 안녕감[10,13,16,19], 낮은 수준의 행복[15]과 낮은 수준의 정신건강과 관련되었다[18]. 그리고 물질주의 선행요인은 높은 수준의 외로움[10,14], 불안[17], 불확실한 정체성[21]과 관련되었으며 이런 선행연구들은 주로 물질주의의 원인과 결과를 탐색하였다. 물질주의를 넘어서는 방법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물질주의 감소에 관한 전략과 개입[13,14], 감사성향 조절효과[22], 통제성의 매개효과[19,23]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높은 물질주의를 넘어서서 안녕감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연구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래서 본 연구는 여러 선행 연구에서 통제성의 매

개 효과에 주목하였다. 물질주의와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통제성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매우 실제적이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먼저 물질주의와 안녕감, 통제성에 관한 개념과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물질주의는 물질의 소유와는 별개로 물질에 집착하고 추구하는 성격 또는 태도이며[8], '성공 판단(success), 소유중심(centrality), 행복 추구(happiness)'의 세 가지 개념으로 분석된다[9]. 물질주의는 부, 소유, 이미지 및 지위 등 외재적 가치를 중심 가치로 두고 성공과 행복의 근원으로 간주하므로 영적 성장과 타인의 안녕감과 같은 내재적 가치와는 상충되는 개념이다[11]. 물질주의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높은 자기에 경향성과 내적 공허함, 낮은 자존감으로 대인관계가 좋지 않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33].

안녕감은 잘(well) 존재(being)하는 것으로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설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하는 인지적 과정으로 행복에 관한 다양한 개념 중 하나이다. 행복은 철학적인 관점에 따라 쾌락적인 입장과 가치평가적인 입장이 있다[34,35]. 쾌락적 입장은 안녕감을 삶의 만족감과 정서적 안녕감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가치 평가적 입장은 여러 심리학적 이론과 성격 심리학을 근거로 자기수용, 자율성, 삶의 목적, 개인의 성장, 환경에 관한 지배력, 대인 관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36-38]. 본 연구는 최근 심리학에서 '심리적 상태'와 '가치 평가적'인 상태를 모두 다루는 경향에 따라 포괄적으로 정서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였다[28,29].

통제성은 인간이 행동하는 이유와 인과관계로 행동 변화 요인을 밝히는 성격 특성 변인이다. 통제성은 개인의 행동에 수반되는 보상이 일어나는 소재를 지각하는 통제 소재(locus of control)에 따라 내부, 외부 통제성으로 나뉜다. 모든 사람은 내부, 외부 통제성 두 성향을 모두 가지며 동일한 상황에서 유사한 경험을 하여도 통제 소재에 따라 해석과 결과가 달라진다[39]. 내부, 외부 통제성은 과거의 강화 경험, 동기에 따라 결정되고, 양극에 두고 정도에 따라 변화하고 발달된다[40,41]. 또한 통제성은 자신(internality)과 권위(powerful others), 운(Chances)으로 세분할 수 있으며[43], 내적 요인인 자신(internality)에게 귀인하는 것을 내부통제성으로, 외적 요인인 권위(powerful others)과 운(Chances)에 귀인하는 것을 외부 통제성으로 간주한다[43].

외부통제는 행동과 행동 결과에 따른 성공과 실패의 결정 변인이 권위, 타인 또는 우연, 운 등의 요인으로 귀인하므로 성공과 실패에 관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상의 사건에서 무기력을 학습하게 된다. 반면에 내부통제는 자신에게 책임을 두고 내부 요인으로 귀인하므로 자신의 기준에 의해 성공과 실패를 평가할 수 있으며, 외부통제에 비해 적응적이고 정신건강에 유리한 대처를 한다[40]. 이러한 특성의 통제성은 안녕감과 행복,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많은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19,23,26,27,44]. 본 연구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하다고 판단하여 세분화된 통제성 척도를 사용하였고, 통제성의 하위 변인을 내부통제성과 외부 통제성으로 나누어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물질주의와 안녕감, 통제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물질주의와 안녕감은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선행연구에서 일관되게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1,10,13-19]. 이러한 이유는 물질에 관한 집착이 더 많은 물질 추구로 이어져 물질 외에 다른 소중한 것을 간과하므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 충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보았다[11,33,42]. 물질주의와 통제성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물질주의가 높을수록 외부통제성이 높았고[17,19,23,24] 내부통제성이 높을수록 물질주의가 낮게 나타났다[25]. 물질주의가 높은 사람은 타인의 평가와 외부 통제에 민감하여 물질에 집착하는 경향이 높고[33] 행동 동기를 인기, 명성, 사회적 지위와 같은 외재적 가치에 두며 내재적 가치를 등한시 한다[11]. 따라서 물질주의와 외부통제성은 정적, 내부 통제성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24]. 또한 통제성과 안녕감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내부통제성이 높을수록, 외부 통제성이 낮을수록 주관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19,23,26,27,44]. 내부통제성이 높은 사람은 삶을 스스로 통제한다는 자신감을 가지므로 높은 안녕감을 나타내었다[26,44].

요약하면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관심 변인들 간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물질주의와 안녕감은 부적 관계[1], 물질주의와 외부통제성은 정적 관계[17,19,24] 물질주의와 내부통제성은 부적 관계[25] 그리고 내부통제성과 안녕감은 정적 관계[26,27] 외부통제성과 안녕감은 부적 관계[1,19]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물질주의와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통제성이 매개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미국 중년을 대상으로 한 Christopher 외[23]의 연구와 동아시아 4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윤경 등[19]의 연구가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중년기 여성이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높은 경제적 성장의 한축이었으며 경제적 성공과 물질적 소유에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강하다

[6]. 이들은 자녀와 부모 사이에 부담과 영향력을 함께 가진 가교 세대로써 다른 세대에 비해 경제적 부담감이 크며[30], 초 고령화 사회와 급변하는 융, 복합 시대를 살면서 Yold세대라 불리며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할 것이라고 예견된다[30,31]. 중년기 여성과 물질주의, 안녕감, 통제성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기의 물질주의와 성인의 행복의 관계에 관한 연구[20], 중년기의 물질주의와 내부통제성이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을 검증한 연구[25]와 중년의 죽음 태도와 행복에서 물질주의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32]가 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아직까지 한국의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물질주의를 넘어서서 안녕감을 높이는 방법에 관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본 연구는 한국의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물질주의와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통제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근거하여 후속으로 물질주의와 안녕감, 통제성의 하위 변인 별 관계에 관한 연구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등 예기치 못한 사회적 불안 요인과 불확실성 그리고 물질주의와 안녕감, 통제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중년기 여성의 물질주의와 통제성, 안녕감의 정도를 파악하고 그들의 관계를 확인하여, 물질주의와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통제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2.1 중년기 여성의 물질주의와 통제성, 외부통제성, 내부통제성, 안녕감, 정서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정도를 파악한다.
- 1.2.2 중년기 여성의 물질주의와 안녕감, 정서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과 통제성, 내부통제성, 외부 통제성의 관계를 확인한다.
- 1.2.3 중년기 여성의 물질주의와 안녕감에서 통제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 가. 중년기 여성의 물질주의와 정서적 안녕감에서 내부통제성과 외부통제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 나. 중년기 여성의 물질주의와 심리적 안녕감에서 내부통제성과 외부통제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B시, C시, D시를 포함한 경상남북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 65세 이하의 중년기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는 2019년 12월 20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주부, 교사, 학부모, 보험 설계사, 외판원, 봉사자 등 다양한 직업 별로 대상자를 직접 만나, 연구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7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31명을 제외하고 최종 239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으로 연령과 소득과 물질주의, 통제성, 정서적 안녕감, 심리적인 안녕감을 측정하는 네 개의 설문을 사용하였다. 총 측정문항은 110문항이다(인구사회학적 변인 2문항, 물질주의 18문항, 통제소재 24문항, 정서적 안녕감 20문항, 심리적 안녕감 46문항).

2.2.1 물질주의 척도

본 연구는 Richins과 Dawson이 개발한 물질주의 척도[9]를 유지혜와 설경옥이 번안, 타당화한 것[45]을 사용하였다. '성공판단(success)', '소유중심(centrality)', '행복추구(happiness)'의 세 가지 하위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8문항이다. 척도의 문항형식 5점 Likert 척도(5=매우 그렇다, 1= 전혀 그렇지 않다)이다. 점수의 총합이 높을수록 물질주의적 가치를 더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지혜, 설경옥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76이었으며[45], 본 연구는 .80이다.

2.2.2 통제성 척도

본 연구는 Levenson의 통제척도[43]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운 외부통제성 8문항, 권위 외부 통제성 8문항, 내부통제성 8문항으로 총 24문항이다. 본 연구는 통제성의 하위변인을 내부통제성과 외부통제성으로 두었고, 운 외부통제성과 권위 외부통제성을 합산하여 외부통제성으로 분석하였다. 척도의 문항형식은 5점 Likert 척도(5=매우 일치한다, 1=매우 불일치한다)이다, Christopher et al[23]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운 통제성은 .80, 권위 통제성은 .83, 내부통제성은 .72였으

며, 본 연구는 운과 권위 외부통제성을 합한 외부통제성은 .83, 내부 통제성은 .72이다.

2.2.3 정서적 안녕감 척도

본 연구에서 정서적인 안녕감 척도는 Watson과 Clark 및 Tellegen[46]의 긍정정서, 부정정서 척도(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ale: PANAS)를 사용하였다.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47]가 번안한 긍정정서 10문항, 부정정서 10문항, 총20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척도의 문항 형식은 5점 Likert 척도(5='매우 그렇다', 1='전혀 그렇지 않다')이다. Watson과 Clark 및 Tellegen[46]이 보고한 원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긍정정서 88, 부정 정서 .87이며, 본 연구는 긍정정서 .91, 부정정서 .92이다.

2.2.4 심리적 안녕감 척도

심리적인 안녕감은 Ryff[36]에 의해 개발된 심리적인 안녕감 척도(PWBS)를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48]가 번안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의 6개의 하위변인은 자아수용, 긍정적인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의한 통제력, 삶의 목적, 개인의 성장이다. 총 46문항이며 자기보고식 평가다. 각 척도의 문항형식은 5점 Likert 척도(5=매우 그렇다, 1=전혀 그렇지 않다)이다. Ryff[36]가 보고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6이며, 본 연구는 .92이다.

2.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3.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자의 연령대와 소득에 따른 물질주의 정도를 구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물질주의와 통제성(내부통제성을 역 채점하여 외부통제성과 합산함), 외부통제성, 내부통제성 그리고 안녕감(정서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을 합산함), 정서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물질주의와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통제성의 매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단계적 중다(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사[50]를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중년기 여성의 물질주의와 통제성, 외부통제성, 내부 통제성, 안녕감, 정서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물질주의 평균은 5점 만점에 2.93(±.02)점, 연령별 물질주의 평균은 40대 2.97, 50대 2.93, 60대 2.81로 나타났다. 통제성의 경우 내부통제성을 역 채점하여 외부 통제성과 합한 값을 통제성으로 산출하였다. 통제성의 평균은 5점 만점에 2.52(±.03)점, 내부통제성의 평균은 3.26(±.03), 외부통제성의 평균은 2.51(±.30)이다. 안녕감의 경우, 안녕감을 통합적으로 보고자 정서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값을 합산하여 안녕감으로 산출하였다. 안녕감 평균은 3.45(±.02)이며 정서적 안녕감 평균은 5점 만점에 3.51(±.03)점, 심리적 안녕감 평균은 3.39(±.0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주요 변인들의 왜도는 -4.8에서 .31, 첨도는 -.18에서 -1.54로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아 모두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 [49].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N=239)

item +		M	SD	Skewness	Kurtosis	
M A T	Total	2.93	.38	.31(.16)	-.18(.30)	
	age	40-49	2.97	.39	.14(.23)	.20(.46)
		50-59	2.93	.36	-.48(.25)	.45(.49)
		60-65	2.81	.34	-.04(.38)	1.54(.75)
L O C	LOC	2.52	.02	-.16(.16)	.01(.31)	
	external	2.51	.46	.31(.16)	.77(.31)	
	internal	3.26	.46	-.37(.16)	.40(.31)	
W B	WB	3.45	.02	.02(.16)	-.11(.31)	
	PANAS	3.51	.53	-.22(.16)	.19(.31)	
	PWBS	3.39	.02	.25(.16)	-.18(.31)	

+MAT: materialism LOC: Loci of control WB: well-being
PANAS: 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Scale,
PWBS: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3.2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중년기 여성의 물질주의와 안녕감($r=-.369, P<.01$), 물질주의와 통제성($r=.290, p<.01$), 통제성과 안녕감($r=-.614, p<.01$), 물질주의와 정서적 안녕감($r=-.330, P<.01$), 물질주의와 심리적 안녕감($r=-.348, p<.01$)은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리고 물질주의와 외부통제($r=.286, p<.01$)는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내부통제성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통제성의 두 하위변인인 외부통제성과 정서적 안녕감($r=-.399, p<.01$), 외부통제성과 심리적 안녕감($r=-.494, p<.01$), 내부통제성과 정서적 안녕감($r=.174, p<.01$), 내부통제성과 심리적 안녕감 ($r=.383, p<.01$)은 모두 유의하였으며 외부통제성과 정서적, 심리적 안녕감과 상관관계수는 내부통제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2 참조).

3.3 물질주의와 안녕감에서 통제성의 매개효과

Baron과 Kenny[51]의 3단계 검증 절차에 따라 물질주의와 안녕감의 관계에서 통제성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1단계(독립→매개)에서 물질주의와 통제성($\beta=.290, p<.001$)은 정적으로 유의하며, 2단계(독립→종속)에서 물질주의와 안녕감($\beta=-.369, p<.001$)은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3단계(독립, 매개→종속)에서 물질주의와 통제성 ($\beta=-.208, p<.001$)은 부적으로 유의하며, 물질주의, 통제성과 안녕감($\beta=-.554, p<.001$)은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리고 통제성의 매개효과가 2단계보다 3단계에서 감소하였다. 따라서 물질주의와 안녕감에서 통제성이 부적으로 부분 매개효과가 있다고 검증되었다. 또한, 통제성의 매개효과 크기에 관한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사를 실시한 결과, $Z=-4.26, (p<.001)$ 로 1.96보다 큰 값을 보여 물질주의와 안녕 감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부분매개변수로 검증되었다(Table 3 참조).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measured variables

variable +	1	2	3	4	5	6	9
1. materialism	1						
2. LOC	.290**	1					
3 internal LOC	-.040	-.311**	1				
4 external LOC	.286**	.873**	.175**	1			
5 Well-being	-.369**	-.614**	.284**	-.479**	1		
6 PANAS	-.330**	-.482**	.174**	-.399**	.941**	1	
7. PWBS	-.348**	-.675**	.383**	-.494**	.875**	.660**	1

** $p<.01$, + 2. LOC: Loci of control 6. PANAS: 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Scale,
7. PWB: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Table 3. The result of the mediation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ism and WB

step+		B	SE	β	t	R ²	F
1	A→C	.233	.050	.290	4.663***	.084	21.742***
2	A→B	-.348	.057	-.369	-6.112***	.136	37.355***
3	A→B	-.196	.049	-.208	-4.014***	.417	84.457***
	C→B	-.649	.061	-.554	-10.667***		

*** $p < .001$, +A: materialism, C: Loci of control,

B: WB : PANAS(Positive affection negative affection Scale)와 PWBS(Psychological well-being Scale)의 합

3.3.1 물질주의와 정서적 안녕감에서 내부통제성과 외부통제성의 매개효과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검증 절차에 따라 물질주의와 정서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외부통제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51]. 1단계(독립→매개)에서 물질주의와 외부통제성($\beta = .286, p < .001$)은 정적으로 유의하며, 2단계(독립→종속)에서 물질주의와 정서적 안녕감($\beta = -.330, p < .001$)은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3단계(독립, 매개→종속)에서 물질주의와 정서적 안녕감($\beta = -.235, p < .001$)은 부적으로 유의하며 물질주의, 외부통제성과 정서적 안녕감($\beta = -.331, p < .001$)은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외부 통제성의 매개효과가 2단계보다 3단계가 감소하였다. 따라서 물질주의와 정서적 안녕감에서 외부통제성이 부적으로 부분 매개 효과가 있다고 검증되었다. 또한 외부통제성의 매개효과 크기의 유의도 검증을 위해 Sobel 검사를 실시한 결과, Z값이 -3.54($p < .001$)로 1.96보다 큰 값을 보여 물질주의와 정서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외부통제성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Table 4 참조). 그러나 내부통제성의 경우는 물질주의와 내부통제성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매개효과를 검증하지 못하였다.

3.3.2 물질주의와 심리적 안녕감에서 내부통제성과 외부통제성의 매개효과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검증 절차에 따라 물질주의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외부통제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1단계(독립→매개)에서 물질주의는 외부통제성에 유의한 영향($\beta = .286, p < .001$)이 나타났고, 2단계(독립→종속)에서 물질주의는 종속변수인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beta = -.348, p < .001$)이 나타났다. 3단계(독립, 매개→종속)에서 물질주의와 외부통제성을 독립변수로 심리적 안녕감을 종속변수로 하였을 때 물질주의($\beta = -.155, p < .001$)와 외부통제성($\beta = -.453, p < .001$)의 영향력 모두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부통제성의 매개효과가 2단계보다 3단계에서 감소하였다. 또한, 외부통제성의 매개효과 크기에 관한 유의도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사를 실시한 결과, Z값이 -3.93($P < .001$)로 나타나 물질주의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유의한 부분매개변수로 검증되었다(Table 5 참조). 그러나 내부통제성의 경우는 물질주의와 내부통제성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매개효과를 검증하지 못하였다.

Table 4. The result of the mediation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ism and PANA

step+		B	SE	β	t	R ²	F
1	A→C1	.305	.066	.286	4.601***	.082	21.169***
2	A→B1	-.400	.074	-.330	-5.381***	.109	28.950***
3	A→B1	-.285	.073	-.235	-3.891***	.210	31.307***
	C1→B1	-.378	.069	-.331	-5.487***		

*** $p < .001$,

+A: materialism, B1: PANA: 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C1: external locus of control

Table 5. The result of the mediation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ism and PWB

step+		B	SE	β	t	R ²	F
1	A→C1	.305	.066	.286	4.601***	.082	21.169***
2	A→B2	-.295	.052	-.348	-5.709***	.121	32.591***
3	A→B2	-.191	.049	-.155	-3.926***	.290	48.241***
	C1→B2	-.343	.046	-.456	-7.503***		

*** $p < .001$, +A: materialism B2: psychological well-being C1: external locus of control

4. 논의 및 결론

본 논문의 목적은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물질주의 정도와 물질주의에 따른 낮은 안녕감을 넘어설 수 있는 심리적 방법으로 물질주의와 안녕감, 통제성의 상관관계와 물질주의와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통제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기 여성의 물질주의 정도($M=2.93$)는 40대($M=2.97$), 50대($M=2.93$), 60대($M=2.8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asser 외[13]의 연구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물질주의가 높다는 것과 일치한다. 구재선[20]은 성인기의 대인관계와 심리사회적 부적응은 청소년기의 물질주의와 관련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고, Kasser 외[13]는 12년, 2년, 6개월 중단 연구에서 물질주의와 관련된 시간이 길수록 안녕감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물질주의 감소를 위한 적절한 개입활동과 교육은 연령이 낮을 때부터 길고 꾸준히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중년기 여성의 물질주의와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물질주의와 안녕감($r=-.369$), 정서적 안녕감($r=-.330$)과 심리적 안녕감($r=-.348$)의 관계는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결과는 메타분석에서 물질주의와 정신건강을 나타내는 12가지 지표와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인 연구[1] 결과와 일치한다. 물질주의와 통제성의 관계에서 물질주의와 외부통제성($r=.286$)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지만 물질주의와 내부통제성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은 Christopher 외[23]와 이윤경 등[19]의 연구와 일치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내부통제성을 역 채점하여 외부통제성과 합한 값을 통제성으로 하였을 때 내부통제성과 통제성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통제성과 물질주의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므로 실제로는 내부 통제성과 물질주의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과 더불어 물질주의와 내부통제성이 유의하지 않은 이유와 연구 대상과 각 나라별 문화권에 따라 어떻게 나타날 지에 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통제성과 안녕감의 관계($r=-.614$)는 외부통제성과 안녕감($r=-.479$), 정서적 안녕감($r=-.399$)과 심리적 안녕감($r=-.494$)의 관계는 모두 유의한 부적인 상관관계, 내부통제성과 안녕감($r=.284$), 정서적 안녕감($r=.174$)과 심리적 안녕감($r=.383$)의 관계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결과는 Christopher 외[23]의 연구결과와 이윤경 등[19]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물질주의

와 외부통제성이 유의한 정적관계, 물질주의와 심리적 안녕감은 유의한 부적관계인 것과 일치하며, 안녕감과 외부통제성의 상관계수($r=-.479$)가 내부통제성($r=.284$)에 비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안녕감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 통제성을 낮추는 것이 내부통제성을 높이는 것에 비해 효과적이며 더 많은 통제성을 획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더 많은 통제성을 획득할수록 심리적으로 더 높은 안녕감 수준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39,43]. 따라서 물질주의와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안녕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제성과 통제성의 하위 변인인 외부통제성을 낮추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중년기 여성의 물질주의와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통제성은 부분 매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물질주의가 높은 사람이 안녕감이 낮은 이유가 통제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통제성을 낮춘다면 안녕감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런데 통제성은 하위 변인인 내부통제성을 역 채점하여 외부 통제성과 합산한 값으로 통제성의 하위 변인 중 내부통제성은 물질주의와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실제로 물질주의와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매개하는 것은 외부통제성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외부통제성이 높을 때 안녕감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물질주의와 정서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외부통제성이 매개한 결과는 Christopher 외[23]의 연구와 이윤경 등[19]의 연구와 일치한다. 물질주의가 높은 사람이 정서적 안녕감이 낮은 이유는 외부통제성이 높기 때문이며, 외부통제성을 낮출 때 정서적 안녕감의 하위 요소인 부정 정서가 낮아지므로 정서적 안녕감이 더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19,23]. 또한 외부통제성이 높다는 것은 외부통제성 척도의 세부 내용인 운, 권위, 명성, 돈과 물질, 광고 등 외재적 가치 추구에 치중하는 경향이 높아서 내적 가치 추구하고 관련된 자율성, 유능성, 대인관계 등의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11,42]. 따라서 높은 물질주의 소유자는 높은 외재적 가치 추위로 높은 자기에 경향성, 낮은 이타심, 내적 공허함, 낮은 자존감 등 부정정서가 높고, 대인관계가 좋지 않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33]. 그러므로 외부통제성과 관련된 운, 성공, 권위, 인기, 광고, 돈, 외모, 자기에 등 외재적 가치[11,43]를 낮추는 것을 상당적 함의로 도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실질적 개입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중년기 여성의 물질주의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외부 통제성이 부분적으로 매개한 결과는

이 윤경 등[19]의 연구에서 운, 권위 외부통제성이 물질주의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부적으로 매개한 것과 일치한다. 물질주의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외부통제성이 매개한다는 것은 외부통제성이 높을 때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 요인 인 자아수용, 긍정적인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의한 통제력, 삶의 목적, 개인의 성장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질주의를 높이는 요인은 광고, 드라마, 미디어 등의 외부 정보에 지속적인 노출에 따른 물질주의 가치관 습득이라고 하였다[11]. 외부 정보의 자극은 자신보다는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며 외재적 가치를 추구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광고와 드라마 등 소셜미디어의 영향, 최신 트렌드와 명품 추구, 학군에 따른 집값 등으로 나타나는 사회 현상이다. Kasser[11]는 물질주의 개입 전략에서 외부 자극에 의한 외부통제성을 낮출 때 물질주의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은 좀 더 높아진다고 하였다. 즉 물질주의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외부통제성을 낮출 때 낮은 심리적 안녕감 또한 좀 더 높아지므로 외부통제성을 낮추는 것이 중년기 여성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종합하여 요약하면, 중년기 여성의 물질주의와 안녕감, 정서적, 심리적 안녕감은 유의한 부적 관계이며, 외부통제성은 물질주의와 안녕감, 정서적,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다고 검증되었다. 그러므로 물질주의가 직접적으로 낮은 안녕감과 낮은 정서적, 심리적 안녕감을 유발시키지만 동시에 외부통제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안녕감과 정서적인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모두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내부통제성은 물질주의와는 무관하지만 정서적,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외부통제성을 낮추는 것과 동시에 내부통제성을 키워주는 개입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11,13,20]. 이러한 개입 방안은 연령이 낮을수록 효과가 있으므로[13] 우리나라는 중년기 여성뿐만 아니라 유아기와 청소년기부터 교육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개입 방안이 없으므로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개입 방안이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즉 외부통제성과 관련된 운, 성공, 권위, 인기, 돈, 외모, 자기애, 광고, 드라마 등의 소셜미디어 영향 등에 따른 외재적 가치[11,43]를 낮추고 내부 통제성과 관련된 이타심[11], 감사[22], 자존감 회복[13], 좋은 인간관계[42] 등 내재적 가치 추구를 높이는 것을 상담 적 함의로 도출하여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입 방안은 물질주의와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외부 통제성을 낮출 것

이며, 내부통제성을 높이고 안녕감 또한 높일 것이다. 따라서 경제 성장과 소득 증가와 함께 물질주의를 넘어서서 정서적, 심리적 안녕감도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는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물질주의와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통제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것에 의의를 둔다.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질주의가 부정적인 사회 현상의 원인 중 하나라고 꼽았던 것을 고려할 때, 높은 물질주의를 넘어 설 수 있는 방법이 절실하지만 아직까지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물질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연구가 없었다. 그러므로 통제성이 물질주의와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안녕감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심리적 변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결과가 물질주의에 따른 낮은 안녕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입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과 후속 연구에 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연구는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표집 된 적은 수의 자료를 사용하여 검증한 만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또한, 본 연구는 중년기 여성의 직업 유무와 직업군, 결혼 여부, 자녀 수 등 기타 변인을 통제하였다. 예를 들어 독립적 생계유지가 가능한 직업군과 그렇지 못한 직업군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정서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을 하위 변인 별로 나누어 분석하지 않았다. 통제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굳이 하위 변인별로 나누어 분석하지 않았지만, 향후 하위 변인 별로 상관관계를 탐색한다면 정서적,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탐색될 것이고 더욱 효율적인 개입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이어질 것이다.

셋째, 물질주의와 내부통제성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결과와 관련하여 심도 있게 분석하지 못하였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 물질주의와 통제성, 안녕감의 하위 변인별 관계에 관한 세부적인 분석과 내재적, 외재적 가치관의 관계,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등 예기치 못한 사회적 불안과 불확실성, 외로움 등과 관련하여 융, 복합적으로 다양하고 심도 있는 연구 등으로 본 연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연구가 지속되기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H. Dittmar, R. Bond, M. Hurst & T. Kasser. (2014). The

-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ism and personal well-being: A meta-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7(5), 879-924.
- [2] World Bank. (2019). https://www.worldbank.org/en/publication/wdr2019#a_
- [3] World Happiness Report. (2019). <https://s3.amazonaws.com/happiness-report/2019/WHR19.pdf>
- [4] Hung Sa Dan Transparency Movement. (2015). http://cleankorea.net/bbs/board.php?bo_table=sub04_02&wr_id=7
- [5] E. Diener, E. M. Suh, C. Kim-Prieto, R. Biswas-Diener & L. S. Tay. (2010). Unhappiness in South Korea: Why it is high and what might be done about it. *Seoul: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0(1), 1-23.
- [6] H. M. Yang & Y. H. Cho. (2018). Socioeconomic Change and Post-materialism in South Korea: Why are Koreans still materialistic?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52(1), 75-100.
- [7] E. Diener & M. E. P. Seligman. (2004). 'Beyond money: Toward an economy of well-being'.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5(1), 1-31.
- [8] R. W. Belk. (1985). Materialism: trait Aspect of living in the material world.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2(3), 265-280.
- [9] M. L. Richins & S. Dawson. (1992). A consumer values orientation for materialism and its measurement: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3), 303-316.
- [10] T. Kasser & A. Ahuvia. (2002). Materialistic values and well-being in business student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2(1), 137-146.
- [11] T. Kasser. (2016). Materialistic values and goal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7(1), 489-514.
- [12] R. Pieters. (2013). Bidirectional dynamics of materialism and loneliness: Not just a vicious cycl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0(4), 615-631.
- [13] T. Kasser et al. (2014). Changes in materialism, changes in psychological well-being: Evidence from three longitudinal studies and an intervention experiment. *Motivation and Emotion*, 38(1), 1-22.
- [14] K. Y. Kim, N. Y. Lim & E. K. Suh. (2014). Lonely people choose money over relationship in pursuit of happiness.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30(1), 1-21.
- [15] M. A. Lee & R. R. Song. (2014). Money, materialism and happines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7(4), 89-114.
- [16] K. M. Kim. (2014). The influence of materialism on subjective well-being and college satisfaction: The mediation effect of meaning in Life.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21(10), 295-314.
- [17] Y. N. Kim. (2016). *Psychological mechanisms of Korean materialism: Focused on Machiavellism, locus of control, self-esteem and anxiety*. Department of Industrial Psychology, Graduate School Hoseo University.
- [18] H. S. Shin, T. I. Kim, Y. B. Park & S. W. Park. (2017). Materialism and mental Health: A negative relation not moderated by economic statu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7(3), 368-397.
- [19] Y. K. Lee, H. J. Shin, Y. S. Chong & B. Kim. (2018). Mediating effect of locus of control between materialism and well-being in East Asian Countries. *Journal of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29(4), 105-132.
- [20] J. S. Koo. (2018). Long-term relationship among materialism, interpersonal relations, and happines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5(6), 169-189.
- [21] S. W. Park & Y. R. Park. (2019). Materialism Mediates the relation between identity and low psychological well-being. *Korea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33(2), 1-21.
- [22] A. J. Roberts, J. A. Tsang & C. Manolis. (2015). Looking for happiness in all the wrong places: The moderating role of gratitude and affect in the materialism-life satisfaction relationship.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10.
- [23] A. N. Christopher, L. Saliba & E. J. Deadmarsh. (2009). Materialism and well-being: The mediating effect of locus of control.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6(7), 682-686.
- [24] K. W. Hong & Y. N. Kim. (2015). An Experimental study of Psychological mechanisms related to materialism in Korea. *Logos management Review*, 13(1), 1-18.
- [25] E. S. Hong. (2014). Categorization and consumption characteristic analysis of female adult consumers based on self-esteem, inner control, and materialism. *Consumer Policy and Education Review*, 10(3), 33-57.
- [26] S. W. Choung & H. S. Shim. (2008). A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the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ling*, 29, 61-81.
- [27] H. Y. Lee & H. S. Jeon. (2015). The influence of the locus of control of middle aged on life satisfaction and preparation for old aged among in the times of converge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11), 433-440.
DOI: 10.14400/JDC.2015.13.11.433
- [28] S. M. Kwon. (2010). The Relation between desire and happiness from the viewpoint of psychology. *CHUL HAK SA SANG : Journal of Philosophical Idea*, 36, 121-152.
- [29] E. Y. Oh. (2017). The concept of happiness simultaneously being a psychological and an evaluative concept. *Sogang Journal of Philosophy*, 50, 137-163.

[30] Yold generation (2020).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3/295605>

[31] J. Morgan & O. Robinson. (2013). Intrinsic aspirations and personal meaning across adulthood: Conceptual interrelations and age/sex differences. *Developmental Psychology, 49(5)*, 999-1010.

[32] H. J. Lee & Y. S. Choung. (2018). The relation between death attitude and happiness : The Mediating effects on materialism and orientation to meaning for middle-aged adult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31(1)*, 129-149.

[33] T. Kasser & R. M. Ryan. (1993). A dark side of the American dream: Correlates of financial success as a central life aspi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2)*, 410-422.

[34] E. Diener, R. A. Emmons, R. J. Larsen & S. Griffin,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35] W. Pavot & E. Diener. (2008).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and the emerging construct of life satisfaction.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3(2)*, 137-152.

[36] C. D. Ryff.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37] C. D. Ryff & C. L. M. Keyes.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4)*, 719-727.

[38] C. D. Ryff & B. H. Singer. (2008). Know thyself and become what you are: A Eudaemonic approach to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9*, 13-39.

[39] J. B. Rotter.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s. *Psychological Monographs, 80(1)*, 1-28.

[40] E. J. Phares. (1976). *Locus of control in personality*. Kansas State University, General Learning Pres.

[41] E. A. Skinner. (1995). *Perceived control, motivation, and coping*. Thousand Oaks, CA: Sage.

[42] E. Deci & R. M. Ryan.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7-268.

[43] H. Levenson. (1981). Differentiating among internality, powerful others, and chance. In H. M. Lefcourt (Ed.), *Research with the locus of control construct, 1*, 15-63. New York: Academic Press.

[44] Y. S. Kim & K. R. Choi. (2006). The effect of the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and self-Esteem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middle aged woma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1(3)*, 173-199.

[45] J. H. You & K. O. Seo. (2018). A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material values scale.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24(3), 385-410.

[46] D. Watson, L. A. Clark & A. Tellegen.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6)*, 1063-1070.

[47] H. H. Lee, E. J. Kim & M. K. Lee. (2003). A validation study of Korea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The PANAS scal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2(4)*, 935-946.

[48] M. S. Kim, H. W. Kim & K. H. Cha. (2001). Analysis on the construct of psychological well-being(PWB) of Korean male and female adults.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5(2)*, 19-39.

[49] P. J. Curran, S. G. West & J. F. Finch,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

[50] M. E. Sobel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 290-321.

[51] R. M. Baron & D. A. Kenny. (1986). The moderator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3.

최 태 선(Taesun Choi)

[정회원]



- 1979년 2월 :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사)
- 1991년 8월 : 경북대학교 산업대학원 전산전공(공학석사)
- 2016년 2월 :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교육학석사)
- 2019년 8월 : 대구대학교(상담학 박사

수료)

· 관심분야 : 상담심리

· E-Mail : tsunny0706@hanmail.net

최 웅 용(Woongyong Choi)

[정회원]



- 1989년 4월 : 독일 Marburg대학교 심리학과(심리학사)
- 1992년 5월 : 독일 Marburg대학교 심리학과(심리학석사)
- 1999년 1월 : 독일 Bamberg대학교 심리학과 박사(철학박사)
- 2000년 3월 ~ 현재 : 대구대학교 산

업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상담심리, 임상심리

· E-Mail : choiwy@daegu.ac.kr